
碩士學位請求論文

兒童이 知覺한 家族體制 類型과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指導教授 許 鐵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徐 瑛 峻

1997年 8月

兒童이 知覺한 家族體制 類型과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指導教授 許 鐵 洙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提出者 徐 瑛 峻



徐瑛峻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査委員長 高 明 奎
審査委員 許 鐵 洙
審査委員 朴 壽 香

<抄錄>

兒童이 知覺한 家族體制 類型과 不適應 行動과의 關係

徐 英 峻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指導教授 許 鐵 洙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체제의 유형론 중에서 가족의 역동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Olson등의 개념모형을 토대로 하여 가족체제와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집을 제주도내 초등학교 5·6 학년 600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54 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 전산처리하였다.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Olson의 가족체제 모형에 근거한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극단적인 가족 체제 유형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았다.

둘째,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응집성이 높은 밀착집단에서 낮은 이탈집단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가족의 적응성 수준을 검증한 결과 역시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경직 집단에서 혼란 집단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적 과정이 가족체제에 의해 학습된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을 구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아동의 심리적 과정에서 장애는 그의 독특한 가족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아동의 행동은 가족이라는 장에서 성장하면서 조건화되고 학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을 지도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그가 속해 있는 가족체제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目 次

I. 서 論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가족체제의 역동성	5
2. 가족체제 모형	6
3. 가족체제 모형과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13
III. 연구문제와 가설	19
IV. 연구방법	21
1. 표집대상	21
2. 측정도구	21
3. 자료 처리	24
V. 결과 및 해석	25
VI. 요약 및 결론	33
* 참고문헌	38
* ABSTRACT	42
* 부 록	45

< 표 목 차 >

<표 II-1>	가족 응집성의 지표	9
<표 II-2>	가족 적응성의 지표	12
<표 IV-1>	표집 대상 아동수	21
<표 IV-2>	응집성 · 적응성 수준별 점수 범위	22
<표 IV-3>	부적응 행동 영역별 문항번호	24
<표 V-1>	가족체제 유형별 부적응 행동 경향	25
<표 V-2>	영역별 부적응 행동 경향과 가족체제 유형과의 관계	27
<표 V-3>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	28
<표 V-4>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른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	29
<표 V-5>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	30
<표 V-6>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른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	31

[그림 목 차]

[그림 II-1]	Olson 등의 가족체제 모형	7
[그림 IV-1]	가족체제 유형별 구분	2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는 사회집단에 소속되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그 가정의 물리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가정환경이 제도적·기능적인 면에서 크게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단절, 세대차의 문제, 개인의 고립 및 소외문제, 물질만능주의와 그에 따른 상대적인 인간성 경시 풍조등이 만연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그만큼 바람직하지 못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졌으며, 가족 구성원간에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은 그의 후속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요인이 되게 된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가족 또는 가정환경이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1960년대 이후 가족 전체가 기능적 단위로서 작용하는 가족과정 (family process)이 아동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과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적 관점 및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이 어떻게 가족환경 내에서 기능하며 또 가족행동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과, 역으로 가족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이론들은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체제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 접근방식을 체제적 접근(system approach)이라 부르기도 한다(이종영, 1992, 재인용).

이 접근 방식은 아동의 성격, 행동발달과 관련하여 가족을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1 대 1의 특정한 관계에 의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가족체제가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자체로서 유기체와 같은 살아있는 체제(living system)로 보고 있으며, 아동은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영향받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성격과 특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가족이론가들은 부적응 행동의 원인·발달·유지에는 특정한 가족양식과 과정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아동의 부적응 행동이 가족 전체의 병리를 나타내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가족체제의 어떤 측면이 부적응행동을 유발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견해를 발전시켰다(박성수, 1979). 따라서 개별적인 이론들로부터는 가족체제와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임용우, 1984).

과거 20년 동안 이론적 문헌들은 가족체제 기능을 일반화 시켜왔으나, 가족체제와 개인적인 아동 기능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본질은 적절하게 증명하지 못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족의 체제적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체제의 어느 한 가지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가족역동성의 상호독립적인 여러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이

론적 입장들이 대두하였는데 이들의 주된 특징은 바로 가족체제를 유형화 한다는 점이다.

Olson, Russell 과 Sprenkle(1979)의 유형은 기능과 역기능의 연속선상에서 모든 일반적인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역기능적 유형에 속하는 가족체제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보다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은 기능적인 가족체제에 속할 것이라는 점이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직관적·이론적일 뿐 실증적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별로 없다. 또한,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아동이 포함된 가족을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두 가지 가족집단 사이에 체제적 특성의 길과가 밝혀지더라도 부적응 행동의 다양성이 무시되거나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는 수준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Broderick & Harvey, 1979)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Olson등(1983)이 고려한 가족체제 유형과 인간의 성장·발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체제 유형과 부적응행동, 도덕성,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임용우, 1984 : 고승자, 1985 : 최병일, 1987 : 손미라, 1989) 그러나, 인간의 성장·발달은 생활의 초기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족체제의 유형론 중에서 가족의 역동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Olson등(1983)의 개념모형을 토대로 하여 가족체제와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아동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부모의 성격 특징과 관련시킨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상

호작용의 전체적 체제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탐색해 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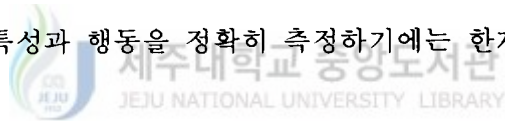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표집대상이 제주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시·도와 전국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체제유형 측정도구는 서양인의 가족체제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을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문화와 상황에 적합한 가족체제 유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질문지만으로 가족의 역동적인 체제적 특성과 행동을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행동 영역에서의 부적응 행동 수준이 Olson등(1983)의 유형에 의한 가족체제 유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Olson등(1983)이 제작한 가족체제 모형에 대하여 고찰한 다음, 그에 따른 가족체제 유형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체제의 역동성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족관계가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제석봉, 1989). 특별히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과정인 가족역동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동발달 및 가족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이 임상에 적용되면서부터 개인이 나타내는 병리가 아동기의 가족관계와 관련있음이 지적되긴 했지만 인간의 문제를 주로 개인정신적 차원에서만 다루었으며 개인이 나타내는 문제는 정신내적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했다(송성자, 1987).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가족치료 이론은 개인의 병리가 단순히 개인의 정신내적 갈등에서 발생된다고 보기 보다는 잘못된 가족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가족이론가 및 가족 치료자들은 가족체제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원인이 되는 가족역동성을 개념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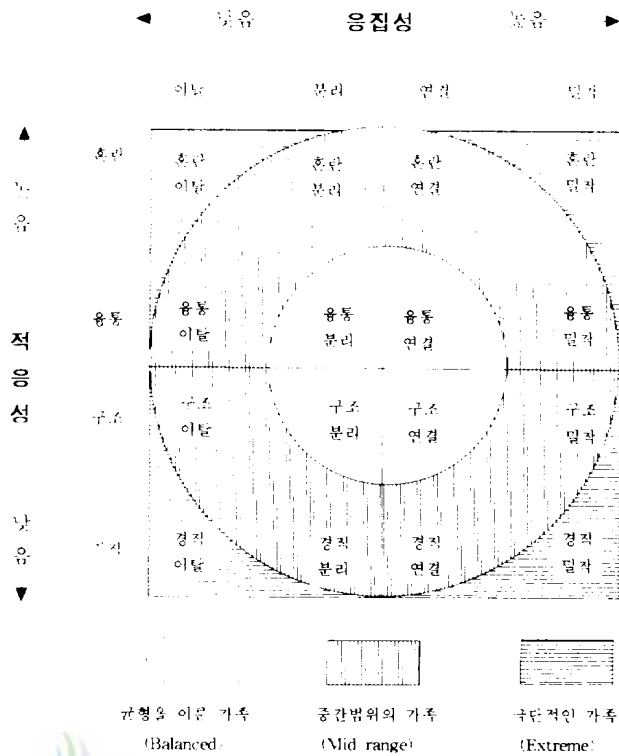
그러던 중 1979년에 Olson, Russell 과 Sprenkle은 가족역동성을 설명해


주는 여러가지 개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가족체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가족치료 이론 및 가족관계 문헌에서 추출한 50 여 가지의 개념들을 세 가지 개념으로 통합하였다(Olson,1983). 그 세 가지 개념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그리고 가족의사소통이다. 이들 중 Olson의 가족체제 모형으로 직접 도식화 됨으로써 가족체제의 기능을 유형화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차원이며 의사소통 차원은 이 모형에 직접 도식화되지는 않고 가족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제를 유형화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개념을 중심으로 Olson의 가족체제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족체제 모형

Olson등(1983)의 가족체제 모형에 의하면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두 차원은 각각 4 가지 수준으로 구분되고 이 수준들의 상호 연결을 통해 총 16 가지의 가족체제 유형이 만들어진다. 가족체제 모형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가족특성과 가족기능 사이의 관계를 곡선적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가족체제유형 중에서 가장 기능적인 가족체제유형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각 차원에서 중간 수준에 위치한 가족이며 양 극단에 위치한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Olson등(1983)이 제시한 가족체제 모형을 먼저 살펴보고,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Olson등(1983)이 제시한 가족체제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II-1]과 같이 3 가지의 유형(Olson, 1983, p.339)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림 II-1] M. Olson의 家族體制 模型

[그림 II-1]에서 응집성은 이탈, 분리, 연결, 밀착의 4 가지 수준으로, 적응성은 경직, 구조, 용통, 혼란의 4 가지 수준으로 각각 구분된다.

이러한 2 가지 차원과 8 가지 수준의 체계적 특성은 서로 연결되어 모두 16 가지의 가족유형으로 분류되지만, 그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3 가지 유형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3 가지 유형집단이란 양 차원에서 중간의 두 수준에 속하는 집단(4 가지 균형을 이룬 가족유형), 양 차원에서 모두 양극에 속하는 집단(4 가지

극단적인 가족유형), 어느 한 차원에서만 극단적인 수준에 속하는 집단(8가지의 중간범위의 가족유형)의 3 가지를 말한다.

이와같은 가족의 유형론적 모형은 가족이 가지는 심리사회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어 설정된 것이다. 즉, 가족구성원들이 보이는 심리적 유대가 아주 강하거나 거의 없을 때, 그리고 가족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변화를 철저히 거부하거나 너무 심하게 유동적일 때 가족전체는 물론 개인의 발달에 역기능이라는 가정을 한다. 이에 반하여 중앙에 있는 4 가지 유형, 즉 적절한 수준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보이는 균형을 이룬 가족은 가족과 개인에게 모두 기능적이라고 설명한다.(Olson et al., 1983)

Olson등(1983)의 모형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이제까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과는 달리 가족의 특성과 가족의 기능 사이의 관계를 곡선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응집성의 축과 적응성의 축에서 각각 중간 부분이 건전한 가족임에 반하여 양극으로 갈수록 불건전한 기능을 지닌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Olson 모형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모형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점에서 역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Olson et al., 1983). 즉, 하나의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상태, 또는 가족구성원의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변화를 조정하고 발달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제 전체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응집성이란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결속으로 정의되며(Olson et al., 1983)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가족체제 모형에서 가족응집성을 진단, 평가하는 데에는

다음 8 가지의 구체적인 하위영역들이 사용된다. 그것은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결속, 가족 외부환경과 하위체계들간의 경계, 가족내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공간과 개인의 사적공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친구와 개인의 사적 친구의 인정, 의사결정의 유형, 가족전체활동과 개인활동 보장정도를 알기 위한 흥미와 오락의 변인이다.

이러한 8 가지의 하위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가족응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순서로 이탈, 분리, 연결, 밀착의 4 가지로 구분되며 이 4 가지 수준에 입각하여 8 가지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Olson et al., 1979, p.165)는 <표 II-1>과 같다.

< 표 II-1 > 가족 응집성의 지표

변인	수준	이탈	분리	연결	밀착
가족의 경계	정서적 유대 외부 경계 내부 경계 세대간의 경계	매우 낮음 개방적 폐쇄적	낮음-중간 반개방적 반개방적	중간-높음 반개방적 반개방적	매우 높음 폐쇄적 개방적
연합	부모-자녀 연합	약함	명확	강함	혼란
시간	홀로 보내는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	최다 없음	중요 중요	허용 중요	강함 없음 최다
공간	사적 공간 가족과의 공간	최다 거의 없음	많음 적음	적음 많음	없음 최다
친구	개인 친구 가족 친구	많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거의 없음 많음 항상
의사결정		항상 각자결정	대부분 각자결정	대부분 가족 과 함께 결정	가족과 함께 결정
흥미와 오락		주로 개별활동	개별활동 지 지	가족활동	거의 가족활동

가족특성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곡선적으로 설명하는 가족체제 모형에 의하면 응집성 수준이 적절할 때, 즉 응집성이 중앙수준(분리와 연결)에 위치할 때 가족기능이 가장 효과적이며, 극단의 수준(이탈과 밀착)에 위치할 때에는 가족기능에 문제가 있다. 응집성 수준이 가장 높은 밀착된 가족에서는 가족성원들의 서로에게 지나치게 관여돼 있고 개인의 자율성 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충성과 일치에 강조된다. 반면, 응집성 수준이 매우 낮은 이탈된 가족에서는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지나친 자율이 강조되기 때문에 개인의 일은 오로지 그 자신의 문제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애착과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중앙수준의 응집성을 보이는 가족에서는 개인의 자율과 가족일치간에 균형이 이루어져 가장 기능적인 가족 체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런 가족체계에서는 개인의 발전에도 최적의 수준을 제공하게 된다.(Olson. et al . , 1979, & 1983)

한편, Minuchin(1974)은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체계들간의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가족내 경계나 위계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이탈된 가족은 하위체계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역기능적이며 이런 가정의 아동은 존경심·소속감같은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게 되기 쉽다고 하였다. 역시, 가족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밀착된 가족의 경우, 하위체계간의 간섭이 심하고 지나친 소속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기능적이며 이런 가정의 아동은 자율과 독립심을 박탈당하기 쉽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발달을 위한 최적의 가족환경은 개인의 독립적 욕구와 가족일체감간의 적절한 수준을 제공할 줄 아는 가족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Olson등의 응집성 개념은 기존의 가족 이론가들의 제안한 다양한 개념들과 유사하며 가족기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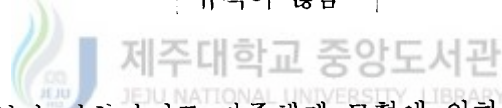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 적응성은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자체의 권력 구조(power structure), 역할관계(role relationship), 관계규칙(relationship rules)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되며(Olson et al . , 1979 & 1983) 가족성원들이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가족체제 모형에서는 가족 적응성을 진단·평가하기 위해서 6 가지의 하위영역들이 사용된다. 즉, 가족성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스타일(assertiveness), 리더쉽의 유형(control), 부모의 자녀훈육 스타일(discipline), 가족성원들 간의 협상능력(negotiation styles), 역할확립 및 역할분담(role relationships), 가족규칙의 명확성 및 융통성(relationship rules)의 변인들이다.

이러한 6 가지 하위 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가족 적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순서로 경직(rigid), 구조(structured), 융통(flexible), 혼란(chaotic)의 4 가지로 구분되며 이 4 가지 수준에 입각하여 6 가지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Olson et al . . , 1979, p. 166)는 <표 II-2>와 같다.

< 표 II-2 > 가족 적응성의 지표

수준 변인	경 직	구 조	용 통	혼 란
주 장	수 동 적 공 격 적	단 호 합	단 호 합	수 동 적 공 격 적
통 제	권 위 주 의 적 리 더 쉽	민 주 주 의 적 리 더 쉽	동 등 한 리 더 쉽	리 더 쉽 부 재 방 임 적.
훈 육	권 위 주 의 적. 매 우 엄 격 제한 된 협 상.	민 주 주 의 적 구조 적 협 상.	민 주 주 의 적 유 연 한 협 상.	매 우 관 대 무 한 정 협 상
협 상	문 제 해 결 능 력 빈 약	문 제 해 결 능 력 좋 음	문 제 해 결 능 력 좋 음	문 제 해 결 능 력 빈 약
역 할	경 직 된 역 할	원 만 한 역 할 분 담	자 연 스 러 운 역 할 변 화	극 적 인 역 할 변 화
규 칙	경 직 된 규 칙, 명 확 한 규 칙 이 많 고 규 칙 준 수 에 엄 격 함	규 칙 이 변 화 함. 목 계 적 인 규 칙 보 다 는 명 확 한 규 칙 이 많 음	규 칙 변 화 가 능. 목 계 적 인 규 칙 이 명 확 한 규 칙 보 다 많 음.	규 칙 변 화 가 극 적. 목 계 적 인 규 칙 이 많 음



가족 응집성과 마찬가지로 가족체제 모형에 의하면 가족 적응성이 중간 수준(구조, 융통)에 가까운 범위에 속할 때 가족기능이 가장 효과적이며 양극단 수준(경직, 혼란)에 속할 때에는 가족기능에 문제가 있다.

가족 적응성이 가장 낮은 경직된 가족의 경우 엄격한 규칙의 준수 및 경직된 역할 구조, 권위주의적인 리더쉽 밑에서 가족성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은 제한을 받아 가족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역시 가장 높은 적응성을 보이는 혼란된 가족의 경우에도 무질서한 역할분담, 일관성 없는 가족규칙으로 인해 가족들은 책임의 한계를 알지 못하며 가족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

다. 반면, 중앙수준의 적응성을 보이는 구조·유통에 속하는 가족의 경우, 민주주의적인 리더십 밑에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과 규칙이 변화되고 가족의 문제해결능력이 좋기 때문에 기능적이다.

3. 가족체제 모형과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사람들의 행동은 그가 가진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이 욕구추구를 위한 활동은 여러가지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즉, 욕구는 행동의 동인(動因)인데, 이러한 욕구는 충족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조건에 의하여 충족이 지연되기도 하고 저지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욕구의 충족이 저지 당했을 때,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유통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상반응으로 해결하려할 때 이를 부적응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정원식, 1984).

김형호는 부적응 행동에 대해 부적응이란 개체의 행동이나 욕구, 감정, 사상등이 사회의 규범이나 요구에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욕구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긴장이 끝내 해소되지 못할 때 그 개체는 부적응에 빠지고 부적응 행동을 낳게 된다고 하였다(김형호, 1976).

또 부적응 행동이란 한 개인이 그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알맞는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Liebman(1958)은 지적하기도 한다.

다른 측면에서 부적응행동은 일정한 기준에서 이탈된 행동으로 법, 규칙, 도덕적 규범 등 질서를 지키지 못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혼자 공상하고 불안해 하거나 등교거부 등의 행동을 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교사나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강봉규, 1988). 따라서 부적응 상태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비정상 상태

를 말한다. 그러나, 인간행동의 정상성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정상과 비정상은 시간과 공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초월하여 규정짓기는 어려운 문제라 여겨진다.

이처럼 부적응 행동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이 주로 일으킬 수 있는 부적응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는데, 정원식·황응연(1985)에 의하면 어린이들에게서 일어나는 부적응 행동의 유형은 사회적 행동문제·정서적 문제·학업적 문제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문제 행동은 어린이들의 사회화 과정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좀더 성장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같은 또래의 집합체인 학교에서 사회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흔히 부적응 행동을 겪게 되는데 그 경우를 들면, 사회적 고립아는 일반적인 관찰에 의하면 아동이 늘 혼자 지내거나 도피반응을 보이며 백일몽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아동들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거나 배척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며, 집단 생활에의 적응을 기피하게 된다. 결국 모두가 사회적 고립아들이며 사회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등교거부 행동은 흔히 상급학년에서 발견되는 일로 등교시간만 되면 복통이나 두통을 빙자하여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로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 의식이 강하고 부모의 기대가 큰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성취 수준도 남보다 월등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다른 아동을 능가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워 좌절하게 되고, 그에 대한 도피 반응으로 신체적 불편을 구실로 등교 거부가 나타난다.

두번째 부적응행동은 정서와 관련된 행동 문제이다. 정서는 아동들 정

신생활의 중심이며, 지각이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정서는 성장함에 따라 표현 방식도 점차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표현을 통제 할 수 있게 되지만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행동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이 행동문제 중 공격적 행동은 상대방부터 불쾌한 자극을 받거나 자기 주장이 거부되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며, 강도가 심해져 신체적으로 직접 표현하거나 남을 헐뜯고 욕하고 싸우는 등 감정 표현을 통제할 시기에 공격적 행동이 상습화 되는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우이다. 어린이의 공격적 행동은 어린이 세계에서는 너무 흔한 예로 정상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항상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경우나, 자기 자신이나 남을 공격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병적인 경우를 심한 부적응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규범을 고의로 무시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동을 말한다. 정서와 관련된 언어장애는 신체적 결함에 의하지 않고, 정서적 원인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말을 더듬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의 문제 즉, 심한 벌, 과잉보호, 심한 감시감독, 지나친 기대수준, 심한 잔소리나 비판 등이 원인이 된다(정원식, 1984). 이외에 정서와 관련하여 자기비하와 자기과시적 행동은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주위를 집중시켜 높이 평가받기를 갈구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아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가 있다. 반대로 자기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간이며 무능하거나 못났다는 열등감에 심취되는 등 잘못된 현실 검증이나 정서적 문제에서 기인된 부적응 행동이 있다.

세째로, 학업과 관련된 행동문제는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일반 아동들과 학습보조를 같이 할 수 없어 특별 교육 과정을 필요로 하는 학습 부진아

가 있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으면서도 학습동기의 부족이나 잘못된 학습습관, 신체적 장애, 정서적 불안,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있어서의 성취도가 낮은 학습부진아가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부적응 행동을 바탕으로 가족체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os와 Moos(1976)는 가족환경을 가족기능과 직선적인 관계에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과 정상적인 가정을 비교연구 하였다. 그 결과 문제가 있는 가정이 응집성이 낮거나(갈등지향적) 높았으며(표현지향적), 적응성이 낮은 것(구조지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Olson등에 의한 가정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Druckman(1979)은 비행청소년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치료를 해 나가면서 Moos의 척도를 사용하여 대상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응집성이 낮은 반면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Olson 모형의 이탈·혼란의 가족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Russell(1979)은 높은 기능을 가진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정과 낮은 기능을 가진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정으로 연구 대상 집단을 나누어 가족체제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가설대로 높은 기능의 가족이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차원에서 모두 적절한 점수를 보였고, 낮은 기능의 가족은 두 차원에서 모두 극단적인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가출 청소년을 가진 가정과 정상 가정을 비교한 Bell(1982)의 연구에서도 가출가정이 정상가정에 비하여 이탈 및 혼란된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Olson, 1983).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가족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Olson의 모형을 직

접 혹은 간접으로 지지해 주는 실증적인 연구들이다. 그러나, 가족의 기능이나 역기능을 가족체제 진단의 준거로 삼는다 하더라도 단순히 가족구성원, 특히 청소년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유무에 따라 가족을 정상가정과 비정상가정이라는 양 집단으로 분류하는 연구 방식은 일반적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족체제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Olson의 모형에 따른 가족체제의 유형이 가족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가족체제에 속하는 구성원이 어떤 행동을 어떤 수준에서 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임용우(1984)의 연구에서는 Olson의 분류한 세 가지 종류의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 행동 영역에 있어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lson의 가족체제 모형에 근거한 가족체제의 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부적응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 범위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으로 갈수록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자의 경우는 모든 부적응행동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불안강박행동, 공격행동, 분열적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행동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최병일(198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 가족체제 유형과 도덕적 판단 능력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lson의 가족체제 유형에 근거한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전반적으

로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 범위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의 순서로 도덕적 판단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적절한 수준에 있을 때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응집성의 차원에서는 분리·연결 수준에 있을 때, 적응성의 경우에는 유연·구조화 수준에 있을 때를 말한다. 이는 모두 응집성, 적응성이 높다거나 낮은 경향보다는 적절한 중간적 수준일 때 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체제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 즉, 응집성 차원과 적응성 차원이 모두 도덕적 판단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적응성 차원이 응집성 차원보다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응성을 이루고 있는 하위변인 즉, 가족내의 권력(주장·통제·규율), 교섭양식, 역할관계, 대화 유형 및 관계의 규칙들이 보다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Olson의 모형에 따른 가족체제 유형(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 범위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이 정원식·황용연(1985)이 제시한 부적응 행동 수준(사회 부적응 행동, 정서 부적응 행동, 학습 부적응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와 가설

가족 또는 가정환경이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족의 체제적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체제의 어느 한 가지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가족역동성의 상호독립적인 여러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이론적 입장들이 대두하였는데 이들의 주된 특징은 바로 가족체제를 유형화한다는 점이다.

Olson, Russell 과 Sprenkle(1979)의 유형은 기능과 역기능의 연속선상에서 모든 일반적인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역기능적 유형에 속하는 가족체제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보다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은 기능적인 가족체제에 속할 것이라는 점이 가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족체제의 유형론 중에서 가족의 역동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Olson등(1983)의 개념모형을 토대로 하여 가족체제와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구명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가족체제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인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연구방법

1. 표집 대상

연구 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 학년 아동 60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이유는 가족체제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가족생활을 묻는 검사문항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중 자료회수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554 부만이 최종 통계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IV-1>과 같다.

< 표 IV-1 > 표집대상 아동수

구분	인원	%
남	272	49.09
여	282	50.91
계	554	100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가족체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아동의 부적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첫째, 가족체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임용우(1984)가 Olson등

(1983)이 제작한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 척도(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 : FACES II)' 를 번안한 것을 초등학교 아동에 맞도록 문장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FACES II에 포함된 문항은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응집성의 8 개 하위영역 및 적응성의 6 개 하위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응집성 16, 적응성 14,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들이 직접 반응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식 5 단계 척도에 의한 방식을 따랐다. 척도의 채점방식은 다음과 같다(Olson et al, 1983).

응집성 차원은 부정적인 문항 (문항번호 : 3, 9, 15, 25, 29)의 총점과 긍정적 문항의 총점을 별도로 채점한 후에 긍정적 문항의 총점에서 부정적 문항의 총점을 빼고 그 점수에 36을 더하면 최종점수가 된다. 여기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6 - 80 이다.

적응성 차원의 경우는 긍정적 문항의 총점에서 부정적 문항 (문항번호 : 24, 28)의 총점을 빼고 그 점수에 12를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한다. 적응성 차원의 점수범위는 15 - 70 이다.

본 연구 자료에 의한 양차원의 가족체제 수준별 분류산정 방식은 FACES II 편람에 제시된 미국의 전국규준 분류점 산정방식을 따랐으며 <표 IV-2>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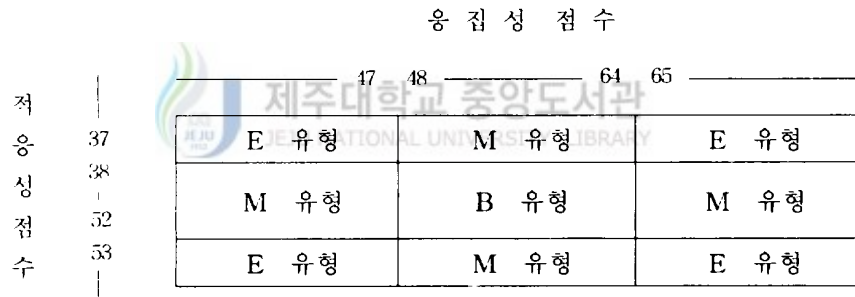
< 표 IV-2 > 응집성·적응성 수준별 점수 범위

응집성 수준 범위(사례수)	이 탈 47이하 (143)	분 리 48-56 (248)	연 결 57-64 (136)	밀 착 65이상 (27)
적응성 수준 범위(사례수)	경 직 37이하 (79)	구 조 38-45 (183)	융 통 46-52 (205)	혼 란 53이상 (87)

이상의 결과로서 본 연구의 분류 대상이 되는 가족체제의 기본적인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은 점수 범위에 따라 구분되었다.

1. 균형을 이룬 가족(가족체제유형 B) : 응집성 점수가 48-64이면서 동시에 적응성 점수가 38-52인 경우
2. 중간 범위의 가족(가족체제유형 M) : 응집성 점수가 48-64이면서 동시에 적응성 점수가 37이하, 또는 53이상인 경우, 그리고 적응성 점수가 38-52이면서 동시에 응집성 점수가 47이하 또는 65이상인 경우
3. 극단적인 가족(가족체제유형 E) : 응집성 점수가 47이하 또는 65이상 이면서 동시에 적응성 점수가 37이하 또는 53이상인 경우

이상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가족 체제 유형별 구분

둘째, 부적응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송준호(1993)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내용을 40 문항으로 구성한 진단검사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4 단계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부적응행동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그런 일이 전혀 없다(0) - 그런 일이 매우 많이 있다(3)]

각 문항은 사회적 부적응 행동 20 문항, 정서관련 부적응 행동 10 문항, 학습관련 부적응 행동 1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인별 문항 번호를 살펴보면 <표 IV-3> 과 같다.

< 표 IV-3 > 부적응 행동 영역별 문항 번호

부적응 행동 하위 영역	문항수	문 항 번 호
사회 부적응 행동	20	1, 5, 6, 7, 9, 12, 13, 14, 15, 16, 20, 22, 24, 25, 29, 35, 36, 37, 38, 39
정서 부적응 행동	10	3, 4, 8, 11, 18, 21, 23, 32, 33, 40
학습 부적응 행동	10	2, 10, 17, 19, 26, 27, 28, 30, 31, 34

3. 자료처리

자료는 SPSS/PC에 의해 전산처리 되었으며 가설 I·II를 검증하기 위하여 F 검증을 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가설 1.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과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 V-1> 과 같다.

< 표 V-1 > 가족체제 유형별 부적응행동 경향

가족체제유형	통계량	\bar{X}	SD	df	F
균형을 이룬 가족 (N=351)		71.31	13.16		
중간범위의 가족 (N=151)		72.62	15.23	2	11.75**
극단적인 가족 (N=52)		77.85	15.06		

** P<.01

<표 V-1> 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부적응 행동 영역은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을 이룬 가족에서 중간 범위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이 71.31에서 77.85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균형을 이룬 가족은, 적절한 응집성·적응성을 보이는 가족의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의 독립적 요구와 가족일체감간의 적절한 수준을 제공하는 가족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적인 리더쉽 밑에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과 규칙이 변화되고 가족의 문제해결력이 좋기 때문에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설 1-1.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족체제 유형에 따른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을 살펴보면 <표 V-2>와 같다.

<표 V-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역별 부적응행동과 가족체제 유형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족체제 유형이 균형을 이룬 가족 유형에서 중간 범위의 가족 유형으로, 그리고 극단적인 가족 유형으로 갈수록 점차 각 영역별 부적응 행동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V-2> 영역별 부적응행동 경향과 가족체제 유형과의 관계

유형 B(Balanced) : 균형을 이룬 가족(N=351)
 유형 M(Mid-Range) : 중간범위의 가족(N=151)
 유형 E(Extreme) : 극단적인 가족(N=52)

부적응 행동 영역	가족체제 유형	X	SD	F
사회 부적응 행동	B	31.49	6.22	10.31**
	M	31.82	7.10	
	E	34.40	7.36	
정서 부적응 행동	B	19.55	4.06	8.53**
	M	20.36	4.71	
	E	21.29	4.80	
학습 부적응 행동	B	20.25	4.65	8.41**
	M	20.42	5.35	
	E	22.15	4.89	

** P<.01

즉, 사회 부적응 행동에서는 균형을 이룬 가족의 부적응 행동 경향이 31.49인데 극단적인 가족으로 갈수록 부적응 행동 경향이 34.40으로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정서 부적응 행동에서도 균형을 이룬 가족 유형에서는 19.55의 부적응 행동 경향을 보인 반면, 극단적인 가족 유형에서는 21.29로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학습 부적응 행동에서도 균형을 이룬 가족 유형은 20.25의 부적응 행동 경향을 보인 반면, 극단적인 가족 유형으로 갈수록 부적응 행동 경향이 22.15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영역별 부적응 행동 경향 역시 균형을 이룬 가족 유형의 아동이 극단적인 가족 유형의 아

동보다 부적응 행동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 가설 2 의 검증

가설 2 는 가족체제 유형의 하위변인인 응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가설 2.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탈, 분리, 연결, 밀착의 4 집단으로 구분하여 점수 결과를 통계 분석해 보면 <표 V-3> 과 같다.

<표 V-3 >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행동 경향

응집성 수준	통계량	\bar{X}	SD	df	F
이탈수준(N=143)		79.11	14.48	3	23.39**
분리수준(N=248)		73.69	13.35		
연결수준(N=136)		68.82	12.99		
밀착수준(N=27)		59.74	8.576		

** P<.01

<표 V-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

동 경향은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착 수준에서는 59.74의 부적응 행동 경향을 보인 반면, 이탈 수준으로 갈수록 부적응 행동 경향이 79.11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1.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른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경향은 <표 V-4> 와 같다.

<표 V-4>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른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행동 경향

응집성	이 탈	분 리	연 결	밀 착	F
부적응 사회 부적응 행 동	35.04	32.56	30.19	26.29	21.70**
정서 부적응 행 동	21.53	20.29	18.92	17.59	11.84**
학습 부적응 행 동	22.53	20.92	19.69	15.85	19.69**

** $P < .01$

<표 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을 보면, 사회 부적응 행동·정서 부적응 행동·학습 부적응 행동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영역별 부적응 행동 경향 역시 응집성에 따라 밀착 수준에서 이탈 수준으로 갈수록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아졌다.

이탈 수준에서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은 것은 가족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설 3 의 검증

가설 3 은 가족체제 유형의 하위변인인 적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가설 3.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응성 점수를 경직, 구조, 융통, 혼란의 4 집단으로 구분하여 점수결과를 통계분석해 보면 <표 V-5 >와 같다.

<표 V-5 >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행동 경향

적응성 수준	통계량	\bar{X}	SD	df	F
혼란수준(N=87)		80.49	14.77	3	19.66**
융통수준(N=205)		74.53	13.24		
구조수준(N=183)		71.87	14.20		
경직수준(N=79)		64.89	10.75		

** P<.01

<표 V-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 수준에서는 64.89의 부적응 행동 경향을 보인 반면, 혼란 수준으로 갈수록 부적응 행동 경향이 80.49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1.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적응성 수준에 따른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표 V-6>과 같다.

<표 V-6>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른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행동 경향

적응성	혼란	융통	구조	경직	F
부적응 사회 부적응 행동	35.32	32.99	31.61	28.89	14.92**
정서 부적응 행동	21.91	20.39	19.90	17.86	12.92**
학습 부적응 행동	23.25	21.15	20.37	18.14	9.52**

** $P<.01$

<표 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을 보면, 사회 부적응 행동·정서 부적응 행동·학습 부적응 행동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영역별 부적응 행동

경향 역시 적응성에 따라 경직 수준에서 혼란 수준으로 갈수록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혼란 수준에서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은 것은, 이러한 가족은 무질서한 역할 분담, 일관성 없는 가족 규칙으로 인해 가족들은 책임의 한계를 알지 못하며 가족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V. 요약 및 결론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던 아동이 지각한 가족 체제 유형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1. 요약

본 연구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아동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보이는 여러가지 행동 영역에서의 부적응행동 수준이 Olson등의 유형에 의한 가족체제 유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 학년 아동 600 명이며 설문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 도구로서 가족체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Olson등(1983)이 제작한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 척도(FACES II)'를 임용우(1984)가 번안한 것을 초등학교 아동에 맞도록 문장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부적응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송준호(1993)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내용을 40 문항으로 구성한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lson의 가족체제 모형에 근거한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균형적인 가족 체제에서 극단적인 가족체제 유형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이 77.31에서 77.85로 높아졌다. 그리고, 영역별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 역시 균형적인 가족 체제에서 극단적인 가족체제 유형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았다.

이처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은 극단적인 가족체제 유형에서는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큰 반면, 균형적인 가족체제 유형에서는 가족구성원이 심리적으로 결속되어 있어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응집성이 높은 밀착집단에서 낮은 이탈집단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59.74에서 79.11로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각 영역별 부적응 행동 경향 역시 밀착 집단에서 이탈 집단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체제모형의 다른 하위변인인 가족의 적응성 수준을 검증한 결과 역시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직 집단에서 혼란 집단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64.89에서 80.49로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각 영역별 부적응 행동 경향 역시 경직 집단에서 혼란 집단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가설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아동의 부적응행동이 가족체제 유형과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임용우(198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Olson의 가족체제 유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은 균형된 응집성과 적응성을 가진 가족에 대하여 대체로 적절한 기능을 보일 것이라는 가

설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부적응행동 수준이 높은 가족은 가족의 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라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동의 부적응행동은 가족기능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바로 Olson등의 가설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2.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였던 연구 문제는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체제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인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결론으로 첫째, 가족체제 유형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균형을 이룬 가족일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낮다.

이처럼 균형을 이룬 가족체제 유형은 적절한 응집성·적응성을 보이는 가족의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의 독립적 요구와 가족일체감간의 적절한 수준을 제공하는 가족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적인 리더쉽 밑에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과 규칙이 변화되고 가족의 문제해결력이 좋기 때문에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서는 닐착, 연결, 분리, 이탈 집단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경향은 높다.

이처럼 이탈 수준에서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은 것은 가족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서는 경직, 구조, 융통, 혼란 집단으로 갈수

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높다.

이처럼 혼란 수준에서 부적응 행동 경향이 높은 것은, 이러한 가족은 무질서한 역할 분담, 일관성 없는 가족 규칙으로 인해 가족들은 책임의 한계를 알지 못하며 가족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적 과정이 가족체제에 의해 학습된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을 구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아동의 심리적 과정에서의 장애는 그의 독특한 가족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아동의 행동은 가족이라는 장에서 성장하면서 조건화되고 학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을 지도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그가 속해 있는 가족체제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과 도출된 결론을 중심으로 앞으로 후속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우리의 문화와 상황에 적절한 가족체제 유형을 정립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서구의 가족체제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능적인 가족체제 유형이나 조건은 주로 그들의 임상적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다분히 서구사회의 가족형태나 가족윤리와 같은 특정한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족체제 유형을 우리나라 가족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는 우리나라 가정에 적합한 기능적인 가족체제 유형을 탐색하고 정립하는 일에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제 유형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가 충분히 높다는 것(Olson 등, 1982)은 보고하고 있지만, 질문지를

통하여 가족의 역동적인 체제적 특성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대부분의 가족체제이론에서는 가족체제와 가족구성원의 행동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인과관계로 보기보다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Wertheim, 1973). 따라서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부적응행동이 관계가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서는 단지 두 변인간의 상관만을 말해 주는 것일 뿐 어느 변인의 일방적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가족체제에 의한 아동의 병리현상(pathology)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한 새로운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参 考 文 献

- 강봉규 (1988). 교육심리학, 서울 : 형설출판사.
- 강은옥 (1983). 가족치료에 있어서 Bowen의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승자 (1985). 가족체제 상호작용 유형과 청소년의 성격 차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인성 (1991). 국민학교 아동의 문제행동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기옥 (1983). 부모의 성격특성과 아동의 행동 장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숙 (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자 (1980). 정서부적응아 판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필식 (1985).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행자 (1985). 아동발달론, 서울 : 修學社
- 김형호 (1976). 아동들의 부적응에 관한 연구, 전주교육대학 논문집.
- 박성수 (1979).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가족치료, 행동과학연구. 12. 통권 113.
- 손미라 (1989).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가족체제 유형과 자아개념

- 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성자 (1987).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준호 (1993). 국민학교 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과 부적응 행동,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금주 (1994). 국민학교 아동에서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부적응행동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세철 (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 : 박영사
- 유안진·서봉연 (1982). 인간발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영주 (1980).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이광규 (1975). 문화인류학, 일조각
- 이 은 (1981). 정서부적응 아동의 특성과 그 환경적 변인 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전순 (198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영 (1992). 가족 체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효재 (1976). 가족과 사회, 경문사.
- 임용우 (1984). 가족체제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선화 (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인협 (198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집문당.
- 전귀연 (198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원식 (1985). 교육환경론, 교육출판사.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병일 (1987).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능력의 차이, 공주사범대학 석사학위 논문.
- 황응연 (1985). 현대 생활지도론, 교육출판사.
- Achenbach, T. (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s : Boys aged 6 through 11.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46. 478-488.
- Ackerman, N. (1966). *Treating the Troubled Family*, New york : Basic.
- Beavers, W.R. & Voeller, M.N.(1983). Family Models :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s.*
- Broderick, C.B. & Harvey, P.K.(1979). Family Process and Child outcomes. In W.Burr(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Cain, A.(1980). *Assessment of family structure*. In Miller, J.R. & Janosik, E.H.,*Family-Focused Care* McGraw-Hill Book Company, N.Y., 115-131

Moos, R. H. (1976). *Family Environment Scare and Preliminary Manual*, Palo Alto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Olson, D. H., Russell, C., & Sprenkle, D.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V* : Theoretical updates, *Family Process*.

Liebman S. (1958). *Emotional Problems of Childhood*, Philadelphia and Montreal : J. B. Lippincott.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Types and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Seo, Young Ju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Chul-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ystem types and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atisfaction of the children with their current family system and their problem behaviors.

Olson's circumplex model was used as the theoretical model of this study. In this model, there are two dimensions of family system : cohesion and adaptability. Each dimension has four levels by which three basic groups are identifie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intobalanced(B-type), mid-range(M-type) and extreme (E type) family system type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72 male and 282 female children attending the fifth,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in Cheju. The instruments used were a family system evaluation scale(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 : FACES II) developed by Olson et al(1982) and children behavior checklist measuring 3 problem behaviors (Social · Emotional · Learned Problem Behavior) developed by Song Jun-ho(1993)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by the following method : one way ANOVA. All the analyses were done by SPSS program for computer.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basic family system types.
2. The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cohesion dimension of the family system types.
3. The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daptability dimension of the family system types.

Change of family system typ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sychological process and mentally internal process of family members. Therefore family system must b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factor in understanding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In addition, family counseling and family education have to deal with family as a whole not individually. More studies are needed to formulate family system models appropriate to Korean culture and circumstances and research and measurement methods are needed to be developed for further sophisticated family systems.



부 록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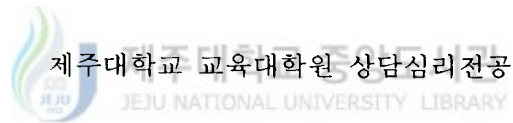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여러분의
느낌이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시험이 아니며, 성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는 바대로 솔직한 마음을 표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을 개인적으로 보거나,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7. 2.



서 영 준 드림

※ 다음 사항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 , 초등학교 () 학년 성 별 (남 , 여)

가정 생활 응답지

아래에 있는 문항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적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고 현재 여러분의 가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 표 하세요.

내 용	거 의 그렇지 않 다	약 간 그렇다	보 통 이 다	자 주 그렇다	거 의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					
2. 우리 가족은 누구나 쉽사리 자기 의견을 표시한다.					
3. 집안 식구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려운 일을 더 많이 의논한다.					
4.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집안 식구 모두가 참여한다.					
5. 우리 식구들은 한 방에 모일 때가 많다.					
6. 자녀들도 자신의 교육문제에 대해 의사 표현을 한다.					
7. 우리 가족은 일을 함께 한다.					
8.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문제를 의논하며 얻은 해결에 대해 만족한다.					
9. 우리 가족은 모두가 제 마음대로 한다.					
10. 우리 가족은 가정에 대한 일을 서로 미룬다.					
11. 우리 가족들은 각자의 친한 친구들을 서로 알고 있다.					
12. 우리집의 규칙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13. 우리집에서는 각자의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식구들과 서로 상의한다.					
14. 우리 가족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내 용

거 의 그렇지 않 다	약 간 그렇다	보 통 이 다	자 주 그렇다	거 의 그렇다
-------------------	------------	------------	------------	------------

15.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16.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따른다.
17.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매우 친밀감을 느낀다.
18. 우리집의 규율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19. 집안 식구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낀다.
20.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
21. 가족이 내린 결정에 대해 집안 식구 모두가 따른다.
22. 우리 집에서는 모두가 책임을 함께 진다.
23. 우리 가족은 서로 함께 여가를 보내기를 좋아한다.
24. 우리 집의 규칙은 바꾸기가 힘들다.
25. 우리 가족은 집에서 함께 있기를 꺼린다.
26.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서로 타협하여 해결한다.
2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서로 인정한다.
28. 우리 가족은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기 꺼려한다.
29. 우리 가족은 전체가 함께 일하기 보다는 끼리끼리 일한다.
30. 우리 가족의 관심과 취미는 서로 같다.



학 교 생 활 응 답 지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며 느끼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 표 하세요.

문 항	그런일이 전혀없다	그런일이 가끔있다	그런일이 많이있다	그런일이 매우많이 있다.
	0	1	2	3
1.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본적이 있다.				
2. 숙제를 안해 온 적이 있다.				
3. 친구들에게 화를 잘 낸다.				
4.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다.				
5.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는다.				
6. 다른 아이들 골탕먹이기를 한다.				
7. 남을 겁주거나 화를 낸다.				
8. 눈물을 글썽이거나 울기를 잘한다.				
9. 남이 싫어하는 짓같은 일을 한다.				
10. 숙제를 빼끼거나 남의 손을 빌려 한다.				
11. 나는 작은 일에도 겁을 잘 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				
12.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13. 아침에 등교시간이 되면 몸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				
14. 늦장을 부리거나 놀다가 학교에 늦게 온다.				
15. 학교길에 부모님 승락없이 다른 곳에 들렀다가 늦게 집에 들어간다.				
16.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깔보거나 놀린다.				
17. 공부시간에 소곤대고 장난을 한다.				
18. 학용품을 함부로 쓰거나 잃어버린다.				
19. 공부하는 일이 정말로 지루하고 싫증나서 하지 않는다.				
20. 재미있지만 위험스런 장난을 한다.				

문 항	그런일이	그런일이	그런일이	그런일이
	전혀없다	가끔있다	많이있다	매우많이 있다.
	0	1	2	3
21. 사람들이 모두 미울 때가 있다.				
22. 말을 하다가 더듬는다.				
23. 나는 아무 일도 하기 싫다.				
24. 친구가 찾아와도 만나지 않는다.				
25. 남이 시키는대로 하거나 따라한다.				
26. 나는 학습준비물을 자주 빠뜨린다.				
27. 공부 시간에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28. 자습시간이나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땐 떠돌고 장난한다.				
29. 친구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30. 시작종이 울려도 공부 준비를 안 한다.				
31. 회의 시간에 함께 토의하지 않는다.				
32. 나는 남을 자주 의심한다.				
33. 친구끼리 껄속말을 하면 나의 흉을 보는 것 같아 그들을 미워한다.				
34. 공부시간에 정신을 차리지 않거나 엉뚱한 짓을 한다.				
35. 나는 친구들에게 뽀내기를 잘 한다.				
36. 친구가 먼저 인사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				
37. 남녀의 성에 관한 비디오나 잡지 등을 본 적이 있다.				
38. 친구가 나의 잘못을 충고하면 미워하거나 화를 낸다.				
39. 경기에서 지면 친구들에게 원망한 다.				
40. 무슨 일이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이 상한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